대통령상 수상에 여고생 이미영 양

학생 192명, 지도교사 76명, 단체 3개교 시상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영예의대통령상은 기계식브레이크회전문을 출품한여고생이미영(경북사대부고3년)양이수상했다. 이번수상작품은마찰의원리를 이용한것으로어린이들이회전문에끼는안전사고를예방할 수 있도록한것이다.

특허청과조선일보사가공동주최하고한국발명진흥회가주관한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학생들의발명의욕고취를위해매년개최하는국내최대규모의학생발명행사로올해가18회째이다.

국무총리상에는표고버섯밭의달팽이채집기를 출품한기민호(광주임곡초등6년)군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안전하고실용적인다기능경적을 출품한이문수(성남낙생고2년)군이수상했다. 또조선일보사사장상에는"워드도우미"프린트꽂이를출품한최원준(일산한수중3년)군이뽑혔다.

한국발명진흥회는지난20일삼성동코엑스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시상식을갖고, 학생192명, 지도교사76명, 단체3개교를포상했다.

이날시상식에는김종갑특허청장, 이구택한국발명진흥회장, 권오훈조선일보사편집실장, 이상희대한변리사회장, 임경배한국학교발명협회장, 한미현한국여성발명협회장, 유영한국특허정보원장, 김두현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총재등이참석했다.

대통령상수상으로올해의학생발명왕이된 이미영양은"TV뉴스에서어린이의회전문사고를보고안전회전문을발명하게됐다면서" 조그마한발명아이디어의추가로기존회전문을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한것이무엇보다기쁘다고"소감을밝혔다.

한편이번학생발명전에서수상한장려상이상수상자는20일부터22일까지강원도홍천에서창의력계발발명캠프를갖고, 오는8월에는금상이상수상자를대상으로일본해외연수기회를제공한다.

지난20일부터24일까지태평양관4실에서는학생발명품과교원발명품54점이전시되었으며, 발명을주제로한 FUN 퍼포먼스와" 고무동력자동차만들기 "등관람객들이직접체험하는시간도주어졌다.

전시장곳곳에서는관람객들에게페이스페인팅, 경품추첨, 스티커사진촬영, 퍼즐맞추기, 다트게임등다양하고재미있는참여이벤트가열렸다.

제7회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함께개최된이번전시회에는약3만여명의관람객이다녀간것으로잠정집계되었다.